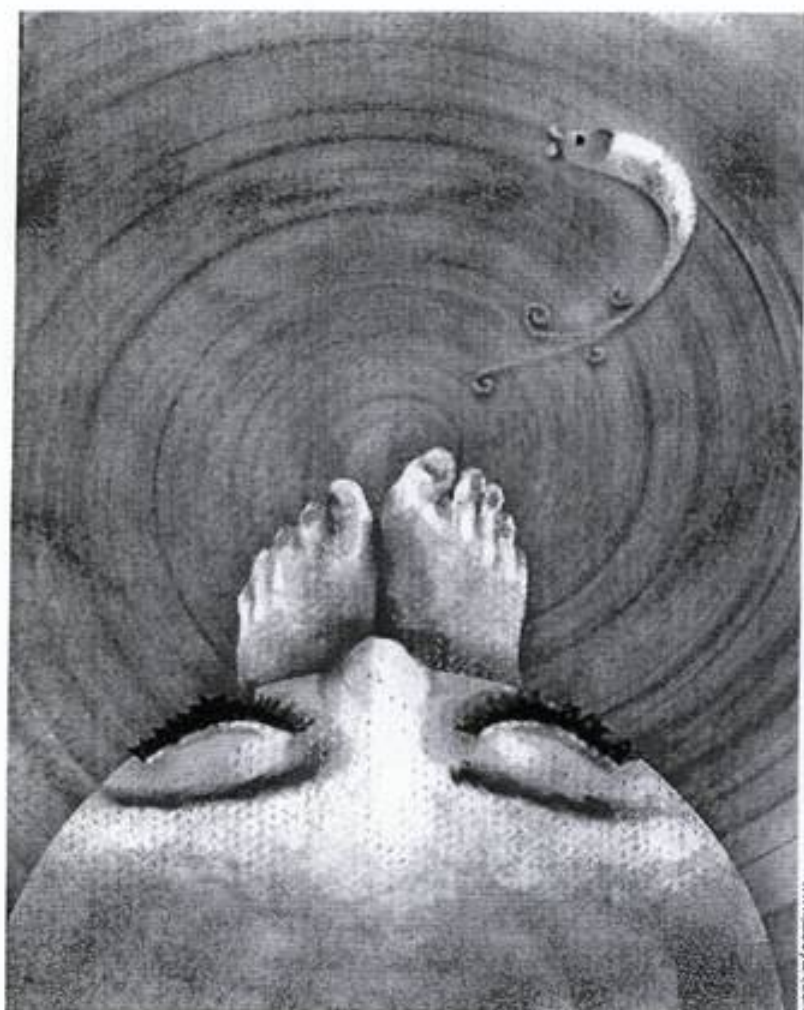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

21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문김채연 · 정이명화와 함께하는 사람들



눈과 눈이 스쳤을 때,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쳤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했을 때,

피어나는 공감의 나를 울린다.

시선이 서로를 알아보고,
두 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가,
수천만 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 목소리가,
일상을 울린다.

〈일상, 울림〉

21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문김채연, 정이명화와 함께하는 사람들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올림

CONTENTS

- 06 후보소개
- 08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
- 10 일상, 올림 - 여성주의는 일상에서 시작한다
- 12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 20대 총여학생회 평가
- 14 <일상, 올림>의 공약
- 17 <일상, 올림>의 집중공약 설명
 - 反/ 성폭력 • 18
 -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맺기 • 22
 - 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받는 일상 • 26
- 29 <일상, 올림>이 바라보는 세상: 여성주의로 사회를 바라보다
 - 장애여성의 목소리, 연세대에 울려 퍼져라! • 30
 - 여성 노동의 현실과 알파걸 담론의 허구성 • 32
 - 언론,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 • 34
 - 차별금지법에서 나의 일상까지 - 곳곳에 숨어있는 이성애중심주의 • 36
 - 한 여성스타의 죽음 • 38
- 40 한 눈에 보는 <일상, 올림>의 공약
- 41 일상을 올리는 여성주의자들의 이야기
 - 그녀들과 함께 한 촛불의 기억 • 42
 - 날려라 빗자루! - 연세대 분회 투쟁에 연대하며 • 44
 - 선본원 4인의 대답, '여성주의 공동체' • 46



www.bbayan.com

넓어 보이는 이 세상이 나에게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좁다.
 여기서도 이렇게 행동할 것, 저기서는 저렇게 행동할 것.
 행동 범위가 너무나 촘촘히 짜여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리기만 하는 규범 속에서 나는 헤맨다.

나는 한 번도 세상이 바라는 이상형이었던 적이 없어.
 내가 불량품인 걸까, 불량품인 걸까, 탓하기를 반복한다.

자책하는 나날이 길어지고, 점점 지쳐가는 중에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솟아난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어,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내 눈의 깜박임으로, 내 목청의 떨림으로, 내 몸의 움직거림으로—
 있는 힘껏 나를 드러낸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서 옳다 하는 몸짓은 없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다.
 세상이 만들어낸 불가능한 잣대와 기준 모두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이 오롯이 존재한다.
 온전한 모습을 찾은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안의 웃음이 크게 터져 나온다.
 멈출 줄을 모른다.



그 쾌감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를 부정하려 들었던 강고한 목소리가 억누른 그/녀들이 함께 웃는다.
 스스로의 몸을 사랑할 수 없었던 그녀와,
 자신감을 잃은 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녀와,
 화려한 겉모습 속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두려워했던 그녀가
 제각기 몸짓으로 자신을 말하고,
 그 따끔따끔한 유쾌함에 호방한 웃음을 날린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굳건하던 목소리가 한 꺼풀 한 꺼풀 힘을 잃는다.

숨 막힐 정도로 좁게 나를 가두던 공간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차츰 차츰 넓혀진다.

마주한 너와 나,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기억을, 규범을, 경계를
 마구 해집어놓는다.

그리하여,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만난다.
 이곳, 여성주의로 움튼 공간에서.



총여학생회 정후보

문김채연 루 (정치외교학과 3학년)

- 2006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학
중앙동아리 연세문화회 활동
- 2007년 중앙동아리 가톨릭학생회 뉴먼 42대 회장
20대 총여학생회 선거 <통을 누비다> 선본원 활동
- 2008년 20대 총여학생회 <통을 누비다> 문화국장
2008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너는 어디로 가니? 기획단
제10회 여성제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기획단
사회과학대학 여성주의 소모임 실타래 활동
연세대학교 여자 농구단 농담 농구로 답을 허물지 활동

| 루 |

꼭꼭 숨겨온
나를 자유롭게
드러내다

내 곁엔 항상 시선이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은 나를 부정하려 들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녹아들었고, 어느새 나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조용히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 묻어가는 것이, 적당히 누군가의 흠집을 드러내 비웃어버리는 것이 속편하다는 못된 생각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여성주의를 만났다. 나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와 다른 이의 아픈 경험을 나누고, 접점을 찾아 공감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즐거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나에게 향해졌던 시선들을 걷어내려 한다. 어느 누군가의 일상을 톡톡 묶어두었던 시선에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상상해본다.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가능성의 힘, 여성주의로 인해 나는 오늘도 행복한 꿈을 꾸다.

너와 내가 이렇게 숨을 쉰다.

처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여성주의자가 되리라 결심한 그때였다.
처음으로 나에게서 아름다운 세상의 가능성을 본 것도 여성주의자가 되리라 결심한 그때였다.

여성주의를 통해 세상과 이야기할 때, 모든 게 얽히고 설킨 요지경 세상이 차마 손댈 수 없는 비통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나의 손짓과 눈짓 하나에도 그와 연결된 수 만개의 세상이 일렁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힘내어 손뼉도 쳐보고 윙크도 해보는 방법을 그러면 그것이 허무한 메아리가 아닌 새로운 노래가 되어 다시 나를 저릿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나는 여성주의로부터 배웠다.

| 파니 |
경계에서
피어난 선율

총여학생회 부후보

정이명화 파니 (사회학과 3학년)

- 2006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학
사회과학대학 2반 우리사이 기대표 활동
사회과학대학 민중가요노래패 늘푸른소리 활동
포이동 안연맞기 공부방 자원고사 활동
4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청사진> 선본원 활동
- 2007년 4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청사진> 집행부 활동
연세대학교 YMCA 총무
생태적 생협 만들가: 生生(쌍생) 활동
학내 먹거리를 고민하는 영화제 '불편한 식사' 기획
지역사회 대안학교 물뿌리사회학교 운영진
- 2008년 사회과학대학 2반 우리사이 농활대 여농주체 활동
여성주의 세미나모임 수다만발 활동
연세대학교 여자농구단 농담: 농구로 담을 허물자 활동





학생회는 학교 당국에 학생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권리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학생의 권리는 학생들이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는 높은 등록금이 자유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등록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형 강의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학내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학생회는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학생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왔다.

여학생은 자신의 교육권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교육권이란 학교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지만, 학내의 남성 중심적 문화 및 구조와 맞물려 여학생 교육권은 드러낼 수 없는 것,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학교라는 생활공간 안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시설 및 분위기 모두 여학생 교육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강의실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듣지 않을 권리, 생리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에 생리로 인한 고통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권리도 교육권으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밤늦게 가로등 없이 어두운 거리를 걷는 것도 여학생에게는 큰 공포이다. 이러한 공포로 인해 여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없다. 이 역시 여학생의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듯 아직도 학내 여학생의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를 말하기란 쉽지 않다. 남성 중심적인 학내 사회에서 여학생의 경험은 반쪽(혹은 그 이하)의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학생 교육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것은 학내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여학생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재 학내 상황에서 여학생 교육권은 이야기되지 않았다. 여학생의 주체적인 말하기 없이는 여학생 교육권과 관련된 사안은 교육권의 관점이 아닌, 그녀들을 위해 베풀어주어야 할 '특별한' 복지 혜택으로써 말해지는 것이다. 여학생은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경험을 말하고, 생활공간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여성주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와 비가시화되어 있는 여성의 경험을 고민하지 않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총여학생회는 학내에 여성주의를 풀어내고 이러한 구조를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여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학생 교육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

일상은 끊임없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나의 일상은 반쪽짜리다. 새내기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OT와 새터의 대화는 이성애자 남성 중심의 즐거움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남성 중심으로 기울어진 나의 일상에서, 나의 목소리는 지워진다. 나는 과, 반, 동아리에서 '예쁜 여자' 혹은 '안 예쁜 여자' 중의 하나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말할 수 없다.

또한 나의 일상과 이어진 무수히 많은 이들의 일상 또한, 하나의 중심과 주변의 구도 속에 기울어져 있다. 내가 매일 타는 학내 셔틀버스는 휠체어가 출입할 수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편안함에 맞춰져 있다. 점심으로 먹은 불고기는 이윤만을 중시하는 공장식 농장에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키워진 소를 상상하게 한다. 후식으로 마시는 커피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여성이 앉아 설 의자조차 없는 매장에서 건네주는 것이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목소리와 수천만 개의 목소리가 함께 지워진다.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는 건물 때문에 원하는 수업을 마음껏 수강할 수 없는 장애학생의 목소리,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이용되고 해고되어 온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들이 묵살된다.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또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일상 속에서 나는 너무나 불편하다.

여성주의는 일상에서 시작한다

여성주의로 공감이 피어나고,
그에 힘을 받아
각자가 생동하는 목소리로
수천수만 가지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일상의 불편함은 너무나 촘촘하게 짜여있다.

그러나 일상은 나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내가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과정 모두는 이 세계의 거대한 질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천만 개의 가부장적 억지들은 너무나 '당연' 하게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상에 불편함을 느낀 이들의 문제제기는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적 취향'이라는 영역의 것으로 제한되었다. 어떤 권력관계에 의해 여성에게 S라인의 몸매가 강요되는지, 누구의 기준에 의해 동성애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은 가리워지고 왜 너는 남들처럼 부지런히 몸매관리를 못하는지, 왜 너는 남들 다하는 바람직한 이성 연애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책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상은 '당연함'의 가면을 쓰고,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본래부터의 질서로 여겨져 왔다.

여성주의를 통해 스스로 나의 일상을 재구성하고 다른 이의 일상과 연대할 수 있다.

여성주의는 그동안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왔던 무수한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이 사회에서 여성의 체중은 대인관계, 취업 가능 여부, 결혼 조건을 결정짓는 삶의 통제요인이 된다. 그러면서 '풍만한 가슴에 마른 다리'와 같이 불가능한 몸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 즉 뚱뚱한 여성을 절제와 인내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하한다. 그러나 여성주의는 여성이 가지는 다이어트에의 강박을 개인의 인내력과 절제심의 지표로 보는 시선을 거부한다. 여성주의는 이것이 '보는' 남성과 '보여지는' 여성의 구도 속에서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몸이 여성에게 강요된 것 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일상을 무수한 권력들이 각축하는 정치의 장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일상 공간에서 누군가를 소외시켜왔던 기준과 규범들이 권력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성찰은, 자신의 일상을 옥죄어오던 권력관계를 전복하고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동안 '당연함'에 가려져 표현하기 힘들었던, 설사 표현한다하더라도 '네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이라서 그런 거'라며 무시되기 일쑤였던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압해왔던 그 무수한 잣대들이며 그 잣대들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잣대들을 의심하고 해체하는 여성주의적 실천을 통해 나는 나의 일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억압은 다른 이의 일상에 가해지는 억압과 이어져있다. 남성중심성, 이성애중심성, 비장애중심성, 자본중심성과 같은 시각들은 모두 획일적인 절대 기준에 의해 중심과 주변을 나누고, 권력을 가지지 않은 이를 주변으로 배제시킨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한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나와 다른 이의 일상에 대한 억압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주의에 기반한 연대를 말해야한다. 여성주의적 연대 속에서, 억압 받는 이들의 일상 속에 숨겨져 왔던 수천만 개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획일적인 절대 기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통해 무수한 대항적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촘촘하게 얹혀져 나타나는 권력관계들의 연계를 해체해나갈 수 있다. 이처럼 여성주의로 공감의 피어나고, 그에 힘을 받아 각자가 생동하는 목소리로 수천수만 가지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울려 퍼질 것이다. ■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는 과, 반, 동아리 등의 일상공동체에 직접 찾아가 직접구성원들과 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여성주의적인 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소통하겠다는 기조를 토대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였다. 21대 총여학생회 선본 <일상, 울림>에서는 <틈을 누비다>가 어떻게 일상으로 다가서서 이를 재구성해 나갔는지를 '일상에 다가서는 사업'과 '여학생 교육권 쟁취'로 나눠서 되짚어보고자 한다.

20대 총여학생회 평가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



1. 일상으로 성큼 다가섰는가

<틈을 누비다>가 '일상으로 다가서기'를 기조로 삼으면서 했던 시도들은 크게 농민학생연대활동 결합, <내 눈에 사과>발간, 여학생 간담회/여성제로 대표된다.

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은 매 해 연세대에서만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 역시 학내 공동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반복되어 나타난다. 게다가 '농민학생연대활동'이라고 하지만 연대하는 농민은 '남성농민'으로 상정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농활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비일비재함을 떠올려 봤을 때, 여성주의적 농활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시도였다. 그러나 <틈을 누비다>의 활동은 후속작업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즉, 기존 학내 문화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바라 본 성폭력에 대한 농활 이후의 담론화 과정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농활을 여성주의, 반성폭력 담론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이를 시행한 것이 첫 시도였던 만큼 21대 총여학생회 선본<일상, 울림>에서는 그 시작을 발판삼아 더욱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여성주의적인 농활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여성주의 놀이터 팀의 프로젝트 잡지 <내 눈에 사과>는 여성주의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다양한 주제로 풀어내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편견 없이 읽힐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적인 주제들과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여성주의적인 시선으로 바라 본 글들은 꾸준히 나왔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내용들을 여성주

의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색다른 시도였다. 이는 소위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과 일상의 '사적인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린 글쓰기를 보여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내 눈에 사과>라는 매체를 통해 독자들의 감상을 듣거나, 글과 관련된 자신의 일상을 독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여성주의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

일상으로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여학생 간담회를 들 수 있다. 여학생 간담회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으나,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단과대 운영위원회 회의와 대표자 모임을 통해 과/반 학생들과 만나겠다는 약속의 이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학기 때 진행한 문화제 <너는 어디로 가니?>와 2학기 때 진행한 여성제 <feminism is for everybody>는 각각 이성애중심주의 및 트랜스젠더, 장애인 이동권 등의 담론을 활성화하거나 여성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관계, 불편함, 일상을 각종 전시물과 강연, 영상, 홍보물 등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여학생 교육권 쟁취 운동

학내 교지를 통해 만난 20대 총여학생회 <뜸을 누비다>의 여학생 교육권 쟁취 운동은 '수영장 생리 할인제 도입'과 '여학생 휴게실 간담회'가 있다. '수영장 생리 할인제'는 이미 많은 구립, 시립 체육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학내 도입은 월경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요금제라는 남성중심적인 제도의 한계와, 그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여학생들의 일상을 짚어 낸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이 편하게 쉬기 어려운 현 학내 문화 속에서 여학생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 휴게실의 공간이 충분한 건물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여학생휴게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된 여학생 휴게실 간담회는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여학생처, 각 단과대 사무실과 단과대 학생회가 함께 협력하여 여학생 휴게실을 중요한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여학생 휴게실 사안을 가져가기로 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뜸을 누비다>의 집중 공약이었던 강의평가항목변경은 그저 설문조사만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책임있는 사업 진행이 안 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상, 20대 총여학생회 <뜸을 누비다>의 2008년도 1년 사업을 살펴봤다. 21대 총여학생회 선본 <일상, 올림>은 <뜸을 누비다>가 일상으로 다가서는 첫 시도에서 일궈낸 여러 성과들이 앞으로의 연세대 학생 사회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농민학생연대활동에서의 반성폭력 운동, 여성주의를 쉬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매체, 여학생들과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그러한 시도들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들은 21대 총여학생회 선본 <일상, 올림>의 과제로 받아 안아, 아직도 성차별적인 문화가 만연하고 여학생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연세대학교의 2009년을, 여성주의적 일상으로 재구성하고 여학생 교육권 쟁취로 수놓고자 한다. ■

〈일상, 울림〉의 공약



01 反! 성폭력



천경자

〈일상, 울림〉선본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성폭력을 바라보고 담론화하여 反성폭력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학생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 울림〉선본은 OT 등의 학내 전체 행사에 대비하여 反성폭력 교양을 진행하고 자치규약 자료집을 발간하려 한다. 성평등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과반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일상에 만연하지만 가시화되지 않았던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담론을 학내에 펼치기 위해 反성폭력 주간을 정해 자보전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활에 참여하여 각 자치단위의 여성 주체와 만나고, 여성주의적 농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02

〈일상, 울림〉선본에서는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의 관계 맺기를 고민하는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학내에서 생태적인 실천을 하려 한다. 이를 위해 에코페미니즘에 기반한 문제의식을 여학생 수첩, 새터 자료집과 같은 각종 매체에 담아낼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팀을 꾸려서 MT, OT/새터, 대동제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생태적으로 만드는 법을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학생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내에서 지속적으로 생태적인 고민에 기반한 소비와 실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www.julio.com

03 여성 노동을 힘차게 이야기하다



한국 사회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받는 억압은 학내 구성원의 현실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얹혀진 노동환경에서 여성 노동은 남성의 노동보다 보조적인 노동으로, 그래서 언제나 대체가능한 임시적인 노동으로 치부되고 있다. <일상, 울림> 선본에서는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내에서 간담회와 같은 장을 마련하여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억압을 학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연세대 비정규 미화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속하여 여성의 노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현재의 사회 구조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나갈 것이다.

04 비장애중심성을 뒤엎다

남성중심적, 비장애중심적 사회에서 장애 여성은 단순히 보호해야 하는, 주체성을 상실한 무성적 존재로 단일화되어 이야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다. 비가시화된 장애여성의 일상과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남성/비장애인/이성애자로 대표되는 이 사회의 획일적인 정상성에 문제제기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일상, 울림> 선본은 장애 여성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학내에 담론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장애 여성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현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시작으로 학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셔틀버스 체계 등의 비장애인중심적인 학내 교육 환경을 폭로하고 담론화하고자 한다.

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받는 일상

여성주의 세미나 모임, 과/반 여학생 소모임, 여성 농구 모임과 같은 여성주의적 소모임은 자신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주의를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여성주의 소모임 네트워크는 이러한 여성주의 모임 간 관계를 만들으로써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상, 울림> 선본에서는 이러한 모임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만남을 만들고자 한다. 소모임들은 이 자리를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여 힘과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새로 생기는 소모임이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소모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05



06

소통으로 피어나는 여성주의



학내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많은 여성은 불편함을 느낀다. 여성주의는 이러한 불편함이 개인적이거나 사소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할 때, 여성주의는 일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학내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현저히 부족하다.

<일상, 올림> 선본은 개인들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함을 것이다. 세미나를 열어 여성주의적 말하기를 고민하고, 여성제와 같은 문화제를 진행하며 일상적인 경험이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축제로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 매체를 통해 여학생이 살아가는 불편한 일상을 유쾌하게 뒤집어 볼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 주체를 발간하여, 여학생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이처럼 <일상, 올림> 선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주의적인 소통을 만들어갈 것이다.

여학생 교육권을 외치다!

07

현재 학교 당국과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는 학생들의 학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육권을 제약받고 있다. 그 속에서 여학생 교육권은 학교와 학생 양 주체의 남성중심적 구조에 의해 이야기되지 못하고 가려져왔다.

이에 <일상, 올림> 선본은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여학생 교육권의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여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의실언어성폭력에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예/아니오가 아닌 주관식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강의실언어성폭력에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더불어 교수 반성폭력교양 이수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이수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행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학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여학생 사위실이 확충되도록 함을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항하여 여성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자기 방어 훈련이 여학생 전용 체육 수업으로 개설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밖에도 여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이를 담론으로 형성하는 작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힘차게 교육권 확보를 이야기할 것이다.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

〈일상, 울림〉 선본의
집중공약 설명

反! 성폭력

그간 이루어진 꾸준한 반성폭력 운동은 학내에서 반성폭력 담론을 공론화하면서, 은폐되었던 일상의 성별 권력관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에 문제제기해왔다. 가부장적인 사회와 다른 없는 학내의 가부장성을 이야기하였고, 강의실언어성폭력 등 문제제기 할 수 없었던 성폭력들을 수면위로 끌어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내 반성폭력 담론은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가해자 중심의 질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성폭력을 야기하는 권력 관계에 대한 성찰보다도, 당장 이것을 성폭력으로 부를 것인가, 이 사람을 가해자라고 할 것인가에만 국한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성폭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행위의 범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경험과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가해자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을 전복해내는 것이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적인 의의다.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로 성폭력 사건이 다시 이야기되었을 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일상의 성별 권력관계를 성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익숙한 권력관계 속에서 비가시화되어있던 폭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일상, 울림〉 선본에서는 아직도 공고한 성별 권력관계가 작동되고 있는 일상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관계를 뒤돌고, '말 할 수 없었던' 폭력들을 드러내고 담론화할 것이다.



01 데이트 성폭력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사적이지만 한 것처럼 보이는 연애 관계조차 철저한 이성 연애 각본에 의해 구성된다. 연애 관계는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되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여/남의 성역할이 구분된다. 이는 가부

장제 사회의 가족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아내/남편의 구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결코 이 사회가 가지는 남성중심성, 성별 권력관계와 동떨어져 생각될 수 없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 관계 안에서 자행되는 성폭력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끼리 알아서 할 일'로 치부되어 버리며,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 소통이나 동의가 전무하더라도 섹슈얼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남성중심적인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일방적인 연행은 사랑도 연애도 아닌 폭력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사랑으로 치환해내고 있는 가해자 중심의 정당화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데이트 성폭력에 문제제기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자/생존자의 명백한 피해 사실이 '연인'이라는 말 하나로 삭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일상, 울림> 선본은 이러한 연애 각본 안의 권력관계와 남성중심성에 문제제기 하며,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재 학내의 일상에서는 동성 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은폐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은 여/남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섹슈얼리티에 상관 없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같은 언행들은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동성 간 성폭력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친밀함의 표시'에 대한 '예민함'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성정체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뿐이다. 현재의 일상은 섹슈얼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너무도 분명하게 이분화되어 있다. '무엇이 섹슈얼한 것인가'가 규범화 되어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성적 수치심 역시 획일화 될 수밖에 없고, 그 획일화된 성적 수치심의 범주 밖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상, 울림>은 동성 간 성폭력을 담론화 함으로써,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성폭력 피해들을 공론화하고, 이성애중심적인 섹슈얼리티의 획일화에 대해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다.

02 동성 간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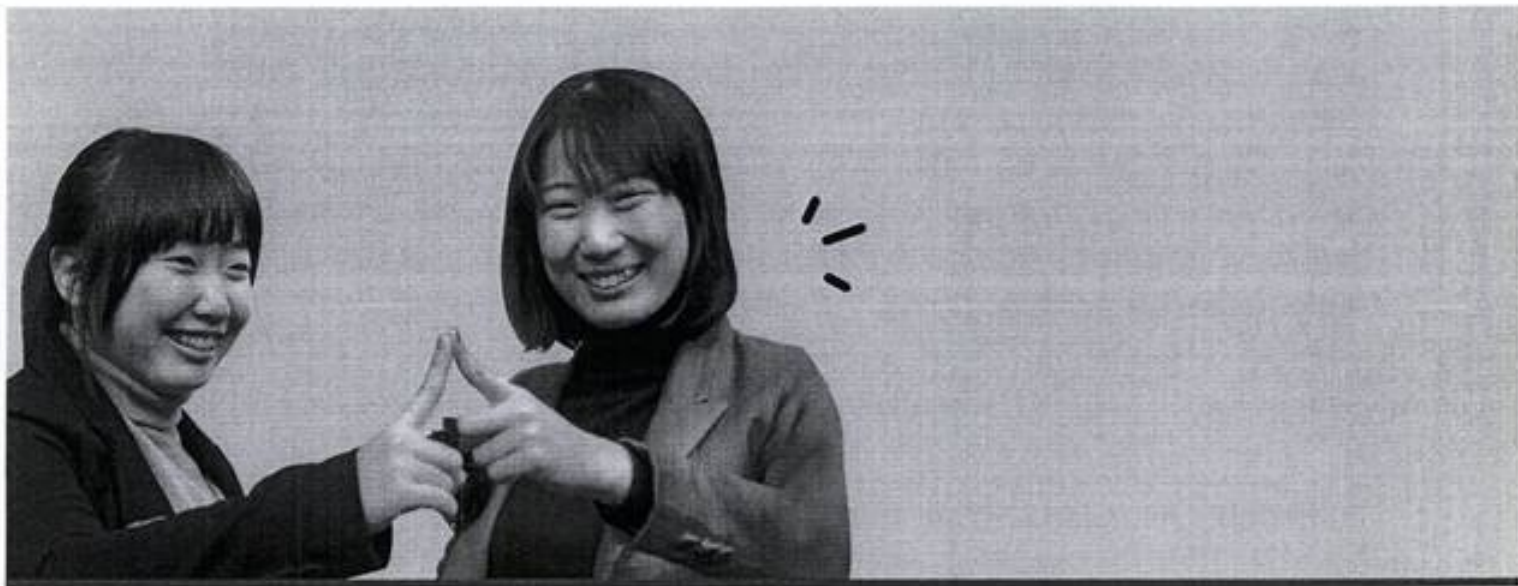
1. '연애의 탈정치화' 자체가 가부장제가 기획한 이성 연애 각본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있기도 하다.

03 사이버 성폭력

수많은 포털사이트에서부터 학내의 사이버강의실까지 온라인 공간이 일상과 밀접해 지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적 문화가 온라인 공간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범람하는 포르노들과 성폭력

적인 인터넷 기사와 댓글 등은 온라인 공간 역시 가부장적인 공간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끊임없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물들이 업데이트 되며, 비이성애자들에 대한 호모포비아적인 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온다. 심지어 스토킹이나, 해킹을 통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성폭력도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에 대한 담론들로 끊임없이 정당화 되고 있다. 익명을 전제로 언어 성폭력을 일삼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되며,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라는 미명아래 폭력적인 게시물 또한 정당화 된다.

이러한 정당화는 가해를 옹호하며, 그 분위기가 성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봉합한다. 피해자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에 기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일상, 울림〉 선본은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남성중심적이고 호모포비아적인 문화에 문제제기 하며, 그것이 오프라인 공간의 성폭력과 연동하여 일상의 권력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폭로해나갈 것이다.



성폭력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공간의 분위기나 환경이 성별 권력에 대한 성찰없이 구성된다면, 그것은 성폭력으로 이야기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학내에서, 많은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가해자-피해자의 구도로 일축되어 왔다. 때문에 가해자로

개인을 지목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들이 식재될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범인'이라는 등식과 가해자만 아니면 된다는 또 다른 가해자 중심적 사고는, 성폭력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한 채 '누가 가해자냐'라는 질문에만 집중하게 했다. 하지만 가해자 개인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성폭력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가해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이 반성폭력 운동의 의의가 아닌 만큼, 가해자 개인을 지목하지 못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함께 쓰는 컴퓨터에 포르노 사이트가 즐겨찾기 되어있는 과/반 공간이나, 언제든지 성폭력적인 발언이 윋기는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의 강의실이 일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의 구성과 소통 방식이 성폭력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의 공간들이 가해자에 동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 울림>은 이러한 공간 자체의 폭력성이 환경적 성폭력임을 이야기하며, 지속적이고 작곡적으로 일상 공간의 성별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할 것이다.

가부장적인 학내 일상 공간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성폭력들을 은폐시켜왔다. <일상, 울림>은 이러한 은폐를 만들어내는 학내의 남성중심성에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여성주의 언어로 성폭력을 다시 이야기 할 것이다. 일상에 도사리고 있는 성별 권력관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반성폭력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04 환경적 성폭력

<일상, 울림> 선본은

1. OT 등의 학내 전체 행사에서 반성폭력 담론이 활성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반성폭력 교양을 진행하고,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을 발간할 것이다.
2. 성평등한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반성폭력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할 것이다.
3. 반성폭력 주관을 기획함으로써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 피해들을 가시화 하고, 피해자/생존자들의 언어로 성폭력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다.
4. 농활에 참여하여 자치단위의 여성주체들과 함께 농활이라는 일상 공간의 성별 권력 관계를 성찰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다.

픽어내는 공감,
상동이는 목소리

일상, 울림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왜 여성주의적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아래 사례를 보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당장 나와 가족을 위한 식탁에 어떤 먹거리를 내어놓는 것이 안전한가, 내가 돌보아야 하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휴장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그녀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그간 공적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광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유모차 부대'로 불리운 결혼한 여성들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논란이 되었다. 조미료와 간식거리, 냉동식품 등 현대인의 생활에 당연하게 결합되어 있는 수많은 먹거리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과물로 돌변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인한 위험을 책임져야만 하는 여성들이 먹거리에 대한 통제권을 외치며 광장에 나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정부의 결정으로 새만금에 방조제가 들어서고 갯벌의 모든 생명이 죽어갔을 때, 가장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은 그 지역의 여성 어민들이었다. 자본 없이 맨손어업을 지속해오던 그녀들에게, 당장 조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상은 선박, 토지 등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토지가 아닌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그녀들의 삶과 동떨어져있었다. 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그녀들은, 송구영이 막힌 채 썩어가는 바다와 현저하게 줄어 가는 조개 수확량을 바라보며 우울증과 화병을 얻는다.¹

이와 같이, 자연을 괴롭히는 것으로 인한 피해와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전세계 여성들의 삶과 연결된다.

에코페미니즘을 외치는 이유는, 우리가 가부장제 산업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와 양육, 채취와 같이 자연과 공생하는, 자연과 가까운 일들이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그녀들의 활동 공간을 억압하게 제한한 결과다. 여성들은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노동 현장에 진출하지 못했고, 권력을 획득할 수도 없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었지만, '임금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가시화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공식 일터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할 때에, 비공식적인 노동을 통해 부족한 분을 채우는 역할도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한꺼번에 부인할 수 없다. 여성 차별적으로 편성된 노동 환경을 비판함과 동시에, 지금 '공적 영역'에서 밀려난 여성들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전세계의 국가가 더 산업화하기 위하여, 국민 총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자국 기업의 이익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경쟁을 지속한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윤택한 생활을 하는가, 남성 자본가²들의 부가 얼마나 축적되었는가, 최신의 과학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통해 설명된다. 권력자들은 전쟁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자연을 착취한다. 당연히, 그 억압은 비가시화되고 정당화된다. 자본주의 국가와 그들의 비호를 받는 기업은 '산업 역군'인 남성들의 노동력을 더 많이 착취하고자 노동강도를 심화하고, 그것을 위한 혹은 그것 외의 모든 재생산 노동과 감정 노동을 여성에게 맡겨서 여성을 착취한다. 당연히, 그 억압은 비가시화되고 정당화된다.

이는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착취할 수 있는 자연이 타자이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결여된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타자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타자인 자연을 훼손하면 그 피해는 인간사회의 타자인 여성, 어린이, 가난한 사람, 제 3세계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인간, 남성, 자본중심의 권력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의의다.



gracinda kacior

1.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7.6.02 기사 "재만금 여성어민들의 자립을 돕자"

2. 현 사회의 어떤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인 자본의 편성은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져있다. 그것을 획득하고 운용하며 유지하는 방식 또한 이성애자/비장애인/남성중심의 권력을 공고히 하며 그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기에 '남성 자본가'라는 용어를 쓴다. 생물학적인 성이 '남자'인 자본가라는 뜻이 아니다.

에코페미니즘이 학교의 일상을 울린다면

〈일상, 울림〉 선본은 우리가 생활하는 학내에서부터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을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연세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구성원이라는 특성이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생활협동조합은 기업과 소비자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대안으로, 상품의 선택과 유통, 그리고 그것의 방식을 소비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자발적인 공동체다. 따라서 학생

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우리들이 매일 드나드는 식당, 문구, 서점 등의 '섬'들과 생활협동조합의 권한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와 같은 외부업체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장하고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먼 곳에서 오는 먹거리를 일상적으로 먹고 마신다. 이를 줄이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한다면, 운반으로 인한 석유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유통업자가 끊임없이 변경되는 구조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1차 생산자에 대한 착취를 줄일 뿐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들어오는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되어 먹거리와 소비 구조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산타크루즈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식당에서 쓰이는 식재료로 가까운 지역(반경 375km 이내)에서 생산되고 유기농업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농장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및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데에 성공한 바 있다.³

이는 소비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재편함으로써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며, 지역의 연결망을 만들어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에 의한 권력을 휘두르며 자연을 착취하는 지금 사회에서, 그것의 대안을 제시하는 생활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들의 일상이 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변화를 만들어내갈 것이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사서 마시고, 사서 먹고, 사서 쓴다. 그것들은 가격, 맛, 안전성 등의 다양한 가치를 통해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MSG가 걱정되지만 가장 싼 값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컵라면이다. 멜라민 걱정 없이 과자를 먹고 싶더라도 자취방에는 오븐을 들여놓을 자리도 없고 과자를 구울 시간도 없다. 다만, '피하려는' 노력으로 공산품 과자를 고르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다. 안전하게 먹기 위하여, 직접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이 있거나, 비싼 유기농산물 전문점에서 장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나와 관계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일 뿐이다. 공업용 기름에서 소고기로, 또 멜라민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파동'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활동은, 당장 나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올해 겪은 광우병 파동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도화된 산업자본주의사회가 만들어내지만, 그 결과

3. 프레시안 2007.9.20일자 기사 "주는 대로 먹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는 달랐다"

물은 나의 일상을 위협한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보다 적은 자본으로 많은 소를 키우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잡탕 사료를 먹인다. 소들은 병에 걸리고 그 병은 인간이 먹을 경우 전이되지만, 잠복기가 길고 발병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싼 값에 '식용'으로 처분된다. 미국은 병든 소고기를 처분하는 대신 다른 것을 얻어가는 '거래'의 일환으로 한국에 이를 넘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바뀌지 않고 미국산 소는 시장에 유통된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업자들이 그 싸게 공급된 소고기로 2차 가공된 상품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그 소를 사 먹게 된다. 식품의 안전성을 따지고 그 위험을 책임지는 여성들과 위험한 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증가한다. 내가 사 먹는 컵라면 하나에 미국과 한국, 기업과 소비자, 정부와 국민, 남성과 여성, 인간과 소의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소비자 주권을 넘어서, 이러한 총체적인 억압을 바라보고, 권력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해체의 작업을 만들어야 한다.



Gwendolyn Kazzor

〈일상, 울림〉은 음식을 먹는, 소비한다는 가장 일상적인 일에서, 자신을 위한 고민이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학교라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과 그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식당, 그 위탁업체, 그리고 그곳에 고용된 노동자들, 유통업자 등,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시작하여 실천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생존권, 그/녀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상, 울림〉은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의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하여 학내를, 우리들의 일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

〈일상, 울림〉 선본에서는,

1. OT, 새터 등의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생활협동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에코페미니즘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이야기해나갈 것이다.
2. 많은 학생들이 식재료를 사는 대동제 장터 기간에 지역농과의 연계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할 것이다.
3. 팀을 구성하여 에코페미니즘을 학내에 담론화하고, 학교 곳곳에 생태적인 실천이 가능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받는 일상



많은 학생들이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학내의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다. 그렇기에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답습되고 있고 이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쉽게 배제된다. 공공연하게 오가는 음담패설과 남성중심적 시선 속에서 많은 여학생들은 연애 대상이나 아니나로 나뉘어 대상화 된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남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들이 중심의 위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여학생들은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고 소외된다. 게다가 여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은 '이기적이다', '지 앞길 찾기 바쁘다'라는 등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온다. 이렇듯 많은 기존의 공동체들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켜왔으며, 이에 공동체를 벗어나게 된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를 정당화하고 학내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유지해온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기존의' 공동체를 벗어난 여학생들이 모임을 만들고자 할 때, 그 개인 혹은 새로운 공동체는 가부장적 문화를 답습해온 이들의 공격을 받는 어려움에 부딪힌다. 누군가는 중심이 되고 누군가는 배제되었던 문화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모임과 그녀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들만의 공간' 이자 '예민하고 까칠한 아이들의 불평, 불만'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의 결성과 유지는 늘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미나, 춤, 농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여성주의적 고민을 풀어내는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은 스스로가 맺는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여학생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제한과 강요되어온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누군가를 배제시키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은 소모임 활동을 통해 가부장적 문화가 답습되는 공동체 안에서는 불가능했던, 여성네트워크를 생성/유지시키며 여성주의적 고민과 성찰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주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동안 제한되어 있었던 스스로의 언어를 찾게 되는 것이다.

21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일상, 올림>선본은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의 중요성을 함께 가져가고자 한다. 선본은 학내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소모임들이 함께 여성주의적 고민을 나누고 활동에 대해서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모임 네트워크는 학내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이 가지는 다양한 활동과 그 의미를 긍정하며, 학내에서 활동하면서 서로의 고민이 맞닿는 지점을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불편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모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즐기는 듯 보이지만 비장애인/남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을 배제하는 행사-음주 중심의 새터, 아카라카, 연고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관련한 행사를 기획하거나 세미나, 여성주의 놀이터¹, 몸을 움직이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여성주의적 고민을 풀어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오프라인 모임과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며 이를 서로의 이슈와 여성주의를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한다. 또한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공감, 소통, 연대 등 의미 있는 활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이후에 새로이 소모임을 만들거나 혹은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1. 20대 총여학생회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놀이문화 자체가 여성주의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주의 놀이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여성주의를 표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이었다.

내 목소리는 참 아름다웠는데,
농구공을 뽐뽐 뛰기며, 목까지 차오른 숨으로
“한판 더 하자!”고 말하던 그때 말이야.

근데 나, 언제부터인가 내 목소리를 꺼먹었어.
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는지,
너무 까마득해 기억조차 나지 않아.

체육 선생님께서

“남자아이들은 여기서 축구하고,
여자아이들은 저쪽 구석에서 피구하면 되겠다.”고
지도해주시면 그때인가?

축구를 하던 남자아이들이 내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며
“허구헌 날 농구하는 여자애들 우람부락해보이지 않나?
난 귀여운 여자애가 좋은데.”하고 말하던 그때인가?
그래서 결국 함께 농구를 해왔던 여자아이들이
농구공을 놓고, 운동화를 벗고
조용히 운동장 한 구석 벤치로 숨어들어 있어서
체육시간을 보내게 된 그때인가?



이문세 / 사진출

그러다가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
그녀가 “농구하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나의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
퐁, 퐁, 퐁
다시, 나의 목소리가 뛰어 올라 ————— “나도!”

누군가에게 예뻐 보여야 한다는 강박 없이
땀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며
살을 빠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겁기 위해 몸을 움직이며
나와 그녀의 목소리가 농구장에 울리기 시작했어.

퐁, 퐁, 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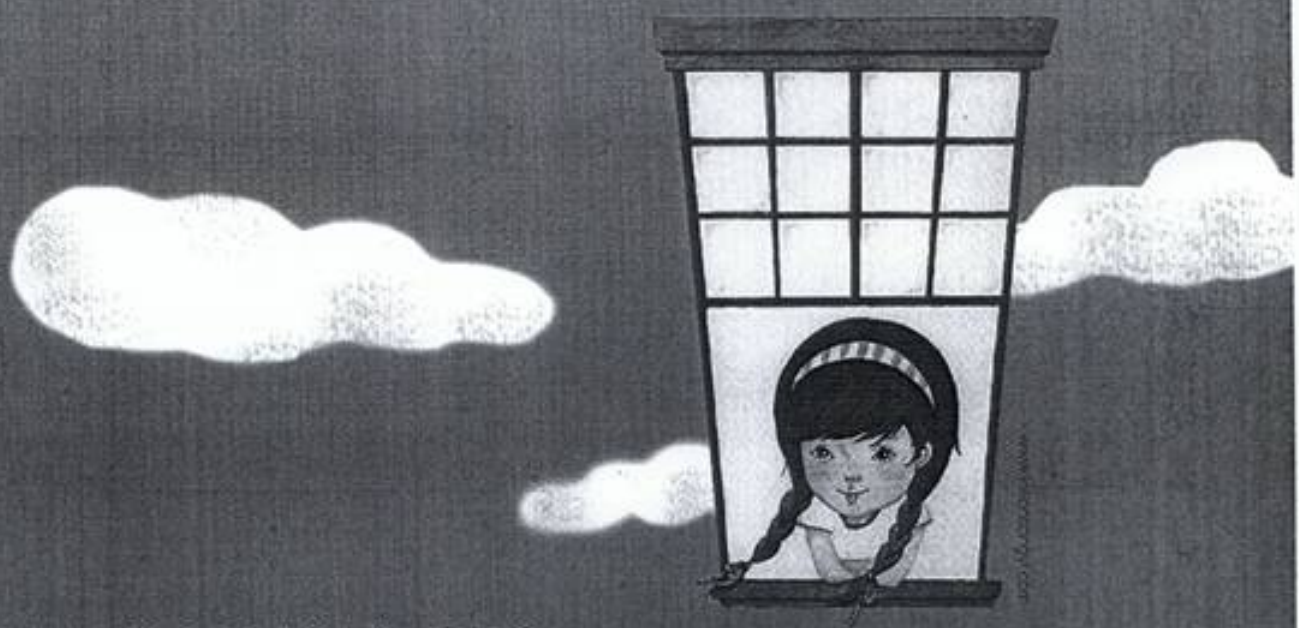
그리고 수 천 만개의 목소리가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지난 채 터져 나와
온 세상의 기준과 잣대들을 퐁, 퐁, 퐁 해집고 다니기 시작했어.
단단하게만 보였던 땅이 갈라지고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 다름으로 만나게 된 하나 하나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져서

퐁, 퐁, 퐁

나와, 너와, 이뻐가 이어진
우리의 일상을 신나게 올려대기 시작했어.



이문세 / 사진출



우리의 일상을 촘촘하게 올라매는 억압들은
사회의 갖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그 억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것,
그 억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은,
공고한 권력관계에 틈을 내고 해체하기 위한 작업이다.
21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일상, 올림>선본은
이 사회가 덮어두고 싶어하는
그 당연한 것들의 정체에 물음표를 띄우고자 하였다.

<일상, 올림>이 바라보는 세상

여성주의로 사회를 바라보다

여성주의로 사회를 바라보다 ①

장애여성¹의 목소리, 연세대에 울려 퍼져라!

(과제작성이나 시험 볼 때 불편한 점은 어떤 거였어요?) 글을 좀 빨리 못 쓰는 편이고 급할 때는 많이 좀 엉망이에요. 그게 좀... 교수님도 시험지를 보실 때 글자가 이쁘고 깨끗하면 좋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글자가 예쁘고 깨끗하면 더 읽기가 좋으니까 교수님이 점수를 더 주고 글자가 못나면 읽기도 좀 그래서 점수도 안 주시고 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시간 안에 다 못쓰는 작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시간을 더 주지는 않았어요?) 예 (대필자를 도우미로 쓰지 그랬어요) 워낙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내가 좀 빨리 쓰면 되고 깨끗이 쓰면 되는데...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학교 다닐 때 장애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똑같이 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랬었어요. (그런 게 학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예 (학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70% 정도 (사례 23)

그런 거 있죠.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만지는 경우, 제가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 줘도 되는데 꼭 거드랑이에 손을 끼워서 일으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는 정말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쾌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례 28)

- 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연구(2002, 인권위)에서 발췌

연세대에서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² 중심적인 대학에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건물이 만들어지고, 책상과 의자가 놓이며, 교재가 마련되고, 수업이 진행된다. 때문에 휠체어이용장애인은 학생회관 무악극장에서 하는 연극을 보러갈 수 없고, (학생회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시작장애인³은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자판기에 점자가 없다), 청각장애인은 영어회화를 배울 수 없다.(연세대에 영어 수화 수업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장애학생은 시간표를 팔 때 '내가 들고 싶은' 수업보다는 (수업과 수업사이의 이동시간,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의 유무, 교수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고려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인식이 비장애중심성과

없이 장애여성의 '주체적이지 못하고, 보호받기만 하는 무성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이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무고한 성폭력 피해자로만 비춰질 뿐,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성·섹슈얼리티는 고인되지 않는다. 덕분에 장애인화장실⁴만 여/남 구분을 해놓지 않거나, 생리대 자판기를 장애여성의 이용 고려없이 설치하는 일이 생긴다. 또한 남성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환경은 장애여성의 취직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가정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교육을 필요없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재가장애인⁵ 3 중 남성은 43.1%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반면에, 여성은 69.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고등교육도 별반 다르지 않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여성은 4.2%로 매우 낮다.⁷

이처럼 열악한 장애인 교육권을 바꾸기 위해 장애운동 단체들은 오랫동안 투쟁해 왔고, 올해 5월 26일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는 성과를 얻었다.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법으로 ▲장애주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자와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 등 대부분의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⁶ 이에 따라 대학 내 장애인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의 학칙을 제정⁷하고, 장애인대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대학 내 장애인대학생 차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상/비정상 이분법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상'과 그 '나머지'를 나눈다. '정상'에 속하는 비장애인·이성애자·남성을 기준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치부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 사회는 여성의 경험을 '일반적'이지 않는 '특수한' 것으로 만들어 그녀들의 목소리는 쉽게 삭제하고, 장애인에게 '모자란'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워 그/녀들의 주체성을 박탈한다. 정상/비정상 이분법을 도구로 여성과 장애인을 억압하는 방식은 서로 이어져 있고,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더욱 교묘히 비가시화된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정상/비정상 이분법을 해체시켜야 한다. 이는 비장애인 중심적인 학내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장애학생 관련 학칙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공식적으로 장애학생 교육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껏 연세대학교 학칙에는 없었던 장애

학생 관련 학칙의 제정은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한걸음이 될 것이다. 2009년 연세대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장애인의 목소리가, 장애여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연세대에 울려 퍼져야 한다. ■

1. '장애인'이라는 통칭이 실상 '남성' 장애인의 경험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 스스로의 경험을 독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여성'을 '장애'로 느끼게 하는 사회구조적 불완전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 장애인'이란 용어는 장애를 지니고 있고 여성의 정체성을 부차화 시킨다는 맥락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2. 흔히 장애인에 대비되는 말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일반인'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장애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이 용어 역시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에서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주류(일반)에서 배제하려는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3. 우리나라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주거형태를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가장애인은 在家장애인 즉 집에 있는 장애인이고, 시설장애인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이 또한 전체 국민의 25.6%만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에 비교해보면, 장애인이 교육에서 얼마나 배제되는지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5.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체 장애남성은 11.2%, 전체 여성은 20.6%, 전체 남성은 31.7%이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6. 국가 수준에서 세워야 할 장애인 교육 사업의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지 않고, 도교육청의 교육규칙 또는 운영계획, 지침 등으로 위임해 버린 데에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7.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학칙에 장애학생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8. 무엇을 기준으로 '모자란' 사람들이란 것일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비장애인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때, '모자란'이란 표현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장애 여성 공감 www.wde.or.kr

여성 노동의 현실과 알파걸' 담론의 허구성

어느 오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집회를 하고 있다. 갑자기 통보된 해고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회사와, 그 으름장보다도 무서운 용역 깡패들이 잔을 치고 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뿐이다. 단지 억울해서만은 아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크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집에 가서 애보고 밥하라는 비아냥도 들려온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들이 '여성' 노동자인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조금씩 알게 된다. 명백해지고 있는 것은 그녀들에 대한 억압뿐이다.

어느 이른 아침, 한 여대생이 토플학원에서 나온다. 커리어가 쌓일수록 부담감 역시 쌓인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선배 언니들의 모습에서, '나는 좀 더 열심히'라는 말을 되뇌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파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능력도 있고, 외모도 뒤떨어지지 않으며,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다. 사람들은 그녀가 '베타 보이'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며, 이기적인 여자 애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그러는가 하면 또 곧 성공할 것처럼, 이미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리고 그 막연했던 불안감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렵다. 영어와 일본어를 마스터한 지금 또다시 강요받는 건 또 다른 제 3외국어 명백해지고 있는 것은 그녀에 대한 억압뿐이다.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는 가부장제의 여성 섹슈얼리티 억압과 맞물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고 있다. 남성중심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끊임없는 비가시화와 함께 여성들의 일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을 '일하지 않는 존재'로 낙인찍어 왔다. 이러한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수용되고 있는 지금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성 노동을 부차적인 것, 대체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의 영역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 노동을 차별적으로 수용하는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일을 '노동'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성 노동이 처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KTX의 여승무원들의 투쟁, 뉴코아-이랜드와 기륭전자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에서 볼 수 있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노동자이

1. 미국 하버드대 아동심리학 교수 덴 칸들러의 2006년 출간된 [새로운 여자의 탄생-알파걸]에서 처음 정의된 말이다. 학업, 운동, 리더십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를 뜻한다. 책에 의하면 알파걸들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www.molleeart.net

며 여성인 그녀들이 이중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고민들은 단지 특정한 계급의 여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다양한 노동을 여성의 것이라는 이유로 가치를 폄하하고 주변화하는, 남성중심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온갖 그녀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일상은 다르지만, 성희롱에 시달리는 직장 여성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이야기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노동현장은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알파걸' 담론은 끊임없이 20대 여대생들을 현실과 괴리시키고 있다. 알파걸의 일상과 미래는 착취와 억압의 사슬에 묶여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알파걸이라는 호명 안에도 무시무시한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기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알파걸' 담론은 그녀들을 경쟁으로 내몬다. 그러면서도, 그녀들이 '자아실현'하기 힘든, 노동 구조의 남성중심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이에 그녀들이 노동 현장에서 가지게 되는 모순과 불평등은 개인이 노력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치환되어 버린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그녀들의 실질적인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기준들에 의해

평가되기 일쑤다. 당연히 그녀들의 외모는 성적 대상화되어 서열화되고, 직장 내 권위주의와 성희롱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성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들과 불안함은 '너희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알파걸이다'라는 말을 통해 삭제되고 있다.

'알파걸'은 없다. '무엇이든지 팔 준비가 되어있는 소모품'이 되라는 이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여전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내건 투쟁을 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은 고용에 있어서의 각종 차별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 여성들도 성공할 수 있고, 특히 그 정도 커리어면 이 사회의 중심에도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운때하고 있는 것은 중심과 주변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과, 그것이 젠더/섹슈얼리티가 얼마나 공고하게 연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모든 '걸'들에 대한 호명이 그렇듯이 남성중심적인 사회는 절대로 그녀들의 젠더/섹슈얼리티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들의 젠더/섹슈얼리티를 억압함으로써,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증식시키려고 할 것이다. 알파걸 담론 아래에서는 어떤 그녀들도 '알파걸'이 될 수 없다. ■

여성주의로 사회를 바라보다 ③

언론,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

지난 9월 22일 문과대 학생회 회장단 활동제한에 대한 기사가 연세춘추(이하 춘추) 제1면에 실렸다. 춘추는 문과대 학생회 회장단이 성폭력 2차 가해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 사실이 문과대 학우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학우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았다.¹ 춘추는 분명 문과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문대 회장단의 활동제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학우들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었다. 그런데, 그래서 춘추는 과연 언론의 소임을 다한 것일까.

춘추는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에 심취한 나머지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취재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기사를 실었다. 정식으로 취재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대 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 관계자에게 무작정 원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이 그들의 입장 표명인 양 기사를 실은 것이다. 이런 춘추의 성급함으로 인해 사실관계에 왜곡이 있는 기사가 실렸음은 물론이다. 춘추의 보도 내용과는 달리 문과대 학생회장은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된 적이 없으며, 대책위가 문과대 학생회장단에게 징계로서의 '자격정지'를 선고한 바도 없고, 해당 사건이 '문과대와 법과대 학생회 사이의 충돌이 발단'이 된 것도 아니다. 이렇듯 춘추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분명한 왜곡보도를 자행하였음에도 사과문과 이러한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된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는 대신 단지 두 줄의 정정 기사를 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춘추의 사건 전달 방식이다. 춘추는 문과대 회장단의 활동제한의 원인이 된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맥락과 대책위원회 구성원 간에 있었던 그간의 소통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자격정지가 학우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폭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학내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까닭은 사건 공개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부정확한 소문이 확산되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해 제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건 해결 과정의 비공개는 또한 성폭력 사건 지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공개가 원칙인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언론을 통해 '예외적으로' 보도하려고 할 때 역시, 피해당사자와 해결 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춘추에게서는 성폭력 사건 보도를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 사건 해결을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단위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건 공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1. 춘추의 기사는 이토록 대단한 이슈①을 학내 언론 중 가장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에 차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제1면에 기사를 실지는 않았을 것이다.
2. 물론 중운위 속기록에 사건 정황이 올라와 있었던 것 또한 문제이다.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히려 춘추는 "총학생회를 포함한 모든 학생단체가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라며, 마치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학생단위들의 답변 회피인 것처럼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

성폭력 사건의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없이 재빠르고 선정적인 폭로에만 집중한 까닭에, 가해자 단위와 피해자 단위가 대책위를 통해 사건을 협의하고 서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해왔던 논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춘추의 성급한 보도로 인해 사건 해결 과정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무엇보다 춘추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간접적인 사건 공개로 2차 가해를 행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춘추의 성찰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춘추 측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후속 기사를 통해 "문과대 측의 「연세춘추」가 대책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 사건을 일방적으로 파헤쳤다"는 지적과 달리, 일련의 사건 정황들은 총학 홈페이지의 중운위 속기록 게시판(<http://www.yonsei365.com>)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²⁾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춘추의 변명과는 달리 춘추는 중운위 속기록에 기록된, 누구에게나 공개된 사항만을 기사로 보도한 것이 아니며, 사건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그러나 왜곡된 정황을 함께 보도하였다. 게다가 춘추는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속한 단위를 기사에 명시하는 우를 범하였다. 따라서 춘추의 문과대 학생회장단 사건 취재는 피해자와 해결주체인 대책위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사건 취재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에 있어 춘추가 보여준 몰상식함은 사실 언론 보도에 있어 결코 드문 일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춘추처럼 독자들의 '알 권리'에만 집중하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3차 가해와 그 과정에서 누적되는 피해자의 상처는 간과하기 일췌이다. 그들은 피해자나 사건 해결 주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gwenka kaczor

사건 정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그들이 언급하기를 거부할 경우 다른 정보원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나 해결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사건 정황을 보도한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거나, 사건에 대한 과장과 왜곡을 병행하여 기사를 더욱 선정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는 언론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론의 몰상식함은 언론이 가진 권력과

맞물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역할은 사실상 그 자체가 언론이 가지는 권력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대부분의 경우 독자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라 특정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자기성찰의 과정 없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른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나 언론의 일방적인 폭로성 보도는 피해자에게는 그 자체로 폭력으로 작용하며, 언론 보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기타 집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지금과 같이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폭로성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취재에서부터 실제 기사 작성, 전달에 이르기까지 보도의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민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성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춘추 역시 공식적인 학내 대표 언론기구로서의 위상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문과대 학생회장단 사건에 대한 왜곡보도와 사건 피해자에게 가한 2차 가해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이후 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이번 사태와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노력을 춘추 스스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 한 춘추는 지금과 같은 '상식 없는' 언론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

차별금지법에서 나의 일상까지 - 곳곳에 숨어있는 이성애중심주의

2007년, 연세대학교 레즈비언 문화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가 한창 학교의 틈을 비탈어 대던 어느 오후, 같이 길을 걸어 가던 한 동기가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말했다. “나는 저런 것들이 제일 싫어, 조용히 하든가 왜 설치.”

‘나는’ ‘저런’ ‘것들이’ ‘제일’ ‘싫어’ ‘조용히’ ‘하든가’ ‘왜’ ‘설치’ 한 글자 한 글자에 식겁한 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성애중심주의라는 언어를 접하고 나서야, 나는 그때 그 감억음을 설명하고 그 발언에 문제제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발언은 명백히 모든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환원하여 그 정체성을 강요하고, 그 이분법 속에서 이성애 정체성과 이성애 관계만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성애가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런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성애중심주의의 권력 행사이자 폭력이다.

이성애중심주의는 이성애가 아닌 다른 정체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비하하고 혐오하고, 억압한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문화제 기간 동안, 문화제 현수막이 누군가의 손에 찢기고, 전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 올해 학내의 한 언론단체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동성애자를 회화화하는 발언이 흘러나온 것도, 매년 열리는 이화여대의 레즈비언 문화제에서 고박고박 자료집을 훔치고 전시물을 찢고 무지개 현수막을 훔치는 등의 호모포비아에 기반한 혐오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성애중심주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작동한다.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라고 묻는 것도, ‘엄마 아빠는 어떤 분들이야?’ 라고 묻는 것도 모두 이성애중심주의의 맥락에 따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성친구 있냐는 물음은 이성연애만이 유일한 연애방식이라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고, 엄마 아빠에 대해 묻는 것 역시 이성 간의 결혼으로 구성되는 가족만이 유일한 가족 형태라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이성애중심주의에 포섭되지 않은 다양한 정체성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배제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1. 차별 금지법은 20개 항목 외의 차별법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위험, 포괄적인 차별 범주의 설정으로 인해 추상적 법안으로 전락할 위험, <차별금지법>임에도 강제력 없이 권고만으로 끝나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 받아 왔다.
2.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지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정부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낯 놓고 앉아서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이 탄생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무지개행동의 활동이 다시 바빠지게 된 것이다.
3. ‘동성애를 찬성한다.’라는 말은 이성애중심주의 사회 내에서 이성애자라는 정상성의 권력을 획득한 이가 할 수 있는 권력행사이다. (누군가의 정체성에 찬성/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동성애를 타자화 함으로써 이성애중심주의를 재생산한다.

2007년 10월, 법무부는 정치·경제·문화 영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려는 의도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예고하였다. 그 법안은 성적 지향,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인종, 가족 형태 등 20개의 차별사유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특정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몇 주 후 법무부는 '성적 지향' 항목에 관한 논란을 이유로 성적 지향, 가족 형태, 학력 등 7가지 항목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던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금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차별을 허용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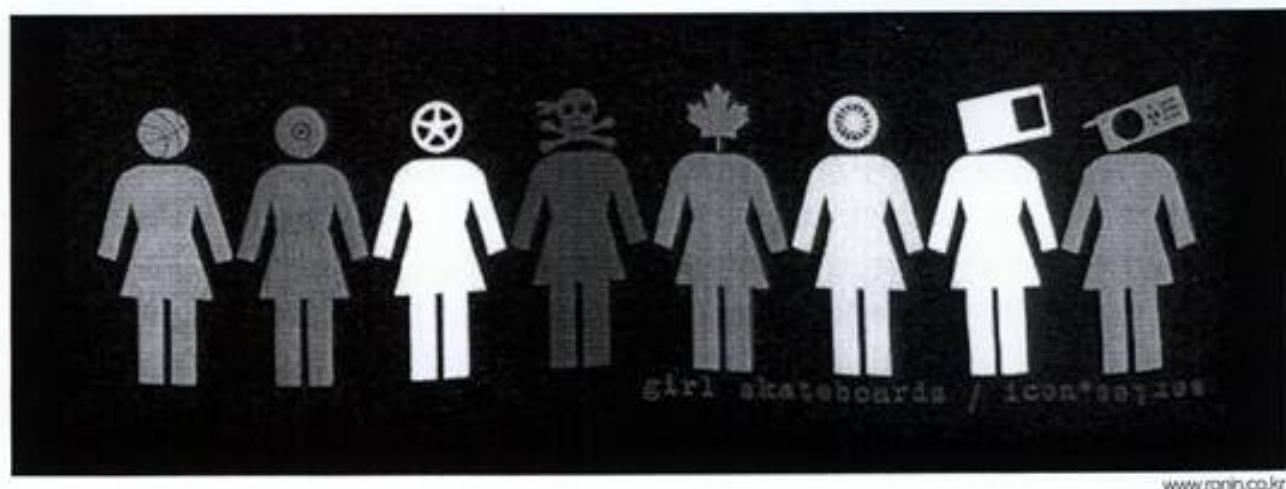
차별 금지법의 여러 가지 한계¹⁾에도 불구하고 차별에 대한 제도적인 금지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당사자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허용되는 것을 참지 않았다. 긴급 번개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개인과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갔다.

<차별 금지법> 사건은 맥락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의 일상과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애중심사회 내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억압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차별금지법> 사건이 일단락이 될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에

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으로 이어져, 성별 이분법, 이성애중심주의, 가부장제가 성소수자들에게 가하는 제도적인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꾸준히 저항하고 있다²⁾.

이성애중심주의로 구성된 일상을 살아온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한' 자연스레 이성애중심주의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성+여성=인류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레 '남자친구(여자친구)있어?' 라고 묻고, 동성애를 '찬성³⁾' 하고, 정상 가족만을 상상했다. 모두 '당연'한 것들이었다.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나머지 절반이 여자인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성애중심주의 사회 내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억압적 상황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를 성찰하며, 끊임없이 일상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그 억압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작동한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집을 나오는 행위에서, 친구를 만나 나누는 대화에서, 나의 눈길에서, 걸음걸이에서, 이성애중심주의는 우리의 일상을 촘촘히 메우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애중심주의를 전복하려는 시도, 그것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일상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이성애중심주의의 권력관계를 해체하는 것 그것은 서로의 일상을 움아매고 있는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



한 여성 스타의 죽음

얼마 전 있었던 배우 최진실의 죽음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비단 한 여성스타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녀의 죽음은 그 소식을 들은 이들에게 '거짓말 같은', '믿고 싶지 않은', 그리고 '우울한' 감정들을 이끌어냈고, 한 건 하고자하는 정치인들은 그녀의 이름을 딴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내려고 했으며, 인터넷 유저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물달기운동과 같은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움직임들을 보였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악플에 대한 비난과 댓글정화운동'에 관한 것, 그리고 '해도와 우울의 정서'로만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불편한 진실들은 단순히 악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그녀의 죽음을 통해 봐야할 것은 '불평등한 연예산업의 구조'와 스타를 소비하는 방식의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그녀가 가지는 여성성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서 히스테릭하게 재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연예산업에서 여성 스타를 제작, 소비하는 방식은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바라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다. 여성 스타는 섹시하면서 단아해야하고, 가정적이면서 프로페셔널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결혼, 직업, 자신의 삶의 질, 아이와 같은 문제들을 여성 스타들은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제대로 수행해야만 한다. 그녀들은 그러한 그녀들의 사생활을 방송에서 보여줌으로서 다시금 사회적으로

웅납될 수 있는 여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극의 역할과 그녀들의 사생활을 분리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그녀들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억측으로 그녀들을 스스로가 원하는 여성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영화에서는 여성스타의 핏파탈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면서도, 사생활에서는 가정적인 주부로, 존경받는 어머니로 보여지는 가족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여성 스타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마냥 착하고 순진한 존재여야 한다. 그녀는 이혼을 해서도 안 되며,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며, 스스로의 섹슈얼리티를 과도하게 드러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녀들의 포르노그래픽한 이미지는 어느 곳에서나 생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가 스스로의 입에 섹스라이프를 담아서 안 되는 것이다.

그녀들의 사회활동은 직업으로서의 여성 스타가 아닌 가부장제 사회 내의 남성중심적 네트워크 내에서 명명하는 '여성'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여성 스타'가 아닌 '여성' 스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녀들은 '소비'되어야만 하고, 그것은 '연애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의 여부'로 결정 된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는 성녀 대 창녀의 이분법을 통해 숭고한 여성인 '엄마'로 명명되거나 불륜의 대상, 섹시한 엄마와 같은 성적판타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혼한 여성 스타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여성, 이미 연예인으로서의 시효를 다한 여성, 음란한 여성으로 인식된다. 그녀들은 끊임없이 여성으로 환원되며, 그 안에서도



다시 남성중심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이런 식의 수용은 그녀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 스타들은 자신의 '나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정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기 있는' 외모를 획득하기 위해 엄격한 자기관리와 통제를 끊임없이 지속해야만 하는 것이다.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 혹은 섹시하고 도도한 이미지로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지만, 여성 스타들에게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의 연기력을 갖고 댄서 좋은 영화를 선택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CF에서의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인기를 유지하게 되고, 영화제에서 자신이 찍은 영화로써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레드카펫에서의 과도한 노출 의상으로 화자되는 연예신문의 1면 사진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 스타를 포르노그래픽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런 소비자들을 의식한,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을 양산해낸 연예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연예산업은 여성 스타들이 인기를 얻은 직후 가능한 많은 CF를 통해 이윤을 내고, 인기가 식을 즈음 그녀들을 폐기처분한다.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여성 스타들은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폐기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우울의 정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직업, 그것이 바로 여성 스타이다. 연기력보다는 연젠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젊음과 아름다움에 의해서 평가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손 안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초조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의 공적인 커리어로서 평가받기보다는 자신의 사생활, 자극히 개인적인 일들로 모든 것을 평가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온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재단된다면, '누구라도' 스스로의 자존감을 훼손당했다는 억울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성 스타가 느끼는 우울함의 정서는 그녀들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것을 양산해내는 연예산업과 소비방식의 문제이다. 그리고 '악플'은 그러한 무자비하고 가부장적인 소비의 방식의 하나의 예로서 놓여있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간과한 채 단순히 악플러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댓글을 정화하기 위한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같은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왜곡된 해결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녀들의 자살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움직임은 가부장적인 구조에 대한 성찰과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한눈에 보는 〈일상, 울림〉의 공약

1 反! 성폭력

-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 일상에 만연하지만 가시화되지 않았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반성폭력 주관을 장애 자보전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반성폭력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 반성폭력 교양을 진행하고 자치규약 자료집을 발간하며, 성평등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할 것입니다.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학생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학내에서 생태적인 고민에 기반한 소비와 실천을 만들어나겠습니다.
- 대동제 장터 기간에 지역농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에서 가능한 생태적인 실천을 제시하겠습니다.
- 에코페미니즘 운동 팀을 꾸려서 각종 이슈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내 곳곳에서 생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겠습니다.

3 여성노동을 힘차게 이야기하다

- 학내에서 여성 노동을 이야기하는 간담회와 같은 장을 마련하여 여대생 취업의 어려움과 노동 현장의 현실을 학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연세대 비정규 미화 여성노동자와의 연대를 지속하고, 다양한 여성 노동 이슈에 대하여 학내 선전과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겠습니다.

비장애중심성을 뒤엎다

4

- 남성중심적이고 비장애중심적인 학내 상황을 가시화하여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정상과 비정상의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하겠습니다.
- 장애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해, 비장애인중심적인 학내 교육환경을 폭로하고 이를 운동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 학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 여성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학내에 담론을 형성해나겠습니다.

5

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받는 일상

- 과/반 내 여학생 소모임, 여성주의 세미나 모임, 여성 농구모임과 같은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에 소모임 네트워크를 제안하여, 이들 간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여성주의를 풀어나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이 지나온 발자취를 남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물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피어나는 여성주의

6

- 다양한 여성주의 이야기를 함께 물어낼 수 있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겠습니다.
- 화장실 소식지, 여성주의 신문과 같은 매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만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여학생 수첩을 발간하겠습니다.
- 여성주의로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축제, 여성제를 열겠습니다.

7

여학생 교육권을 외치다!

- 학생들이 강의실언어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강의 평가 항목을 수정·확충하고, 교수 반성폭력교양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여학생 사원실을 확충하겠습니다.
-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이 여학생 전용 체육 수업으로 개설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여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를 담론으로 형성해나겠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피곤하면서도 즐겁고, 기쁘면서도 까칠한 그/녀들의 일상.
잔잔하게 일상을 울리며 다부지게 살아가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지지하며 귀 기울인다.

일상을 울리는 여성주의자들의 이야기

일상을 올리는 여성주의자들의 이야기 ①

그녀들과 함께 한 촛불의 기억

2008년 상반기의 내 삶을 통째로 바친 곳은 '촛불광장'이었다. 촛불의 행렬을 보고 가슴이 울렁였던 기억, 여성주의자 친구들과 같이 나섰던 공감, 표출했던 분노, 또 그 곳에서 만난 수많은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기로 가득 찼었던 그 날들을 떠올려본다.



'촛불소녀' 언니들, 멋져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초반기에 처음으로 집회를 참가했을 때의 기억이 난다. 괜히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어떤 광경을 보았다. 세 네 명의 약간 술 취한 아저씨들이 종이에 매직으로 '민영화 반대'라는 글씨를 써서 나온 한 학생을 가운데로 몰아넣고 사비를 거는 중이었다. "아니, 아저씨들이 여기에서까지 또!" 하며 분노한 나는 가운데로 들어가 아저씨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다.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하는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가 근처에 있는 여고 3학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촛불집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왔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는 다들 싸우자고 하면서 정작 '촛불집회해요!' 하고 나왔는데 사람이 몇 십명 정도밖에 없어서 힘이 빠지고 실망했단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촛불을 키워나가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처음엔 몇 십 명도 채 안 되던 대오가 몇 백명이 되어가던 즈음 그 무렵이었다. 그 때는 막연하게 '대단한 학생이네'라고 생각하면서 가방 속에 있던 먹을 것과 핸드폰 번호를 나누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졌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언론에서 '촛불소녀' 라면서 거대한 촛불 시위의 시작은 다음 아님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라고 떠들 때, '내가 만났던 그 친구도 촛불의 시작을 만든 저 무리들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했다.

나는 '미친 소'가 아니예요.

점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유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분노를 표현했다. 그렇지만 발언들 중 대부분이 '미친 소, 너나 먹어'라는 내용이었다. 단순히 '미친 소'를 욕하면서, 우리 국민이(혹은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먹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왜 '미친' 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같이 성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소 인형 옷을 입고 '미친 소 아니예요, 인간들 때문에 아픈 소예요'라는 피켓을 써서 집회에 참가했다. 멀찍히 잘 있던 소를 '아프게' 만든 것은 인간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야하는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소를 비롯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지금의 사육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알려내고 싶었다.

오빠는 필요없다.

처음 도로로 진출해서 가두시위를 시작했던 날, 내가 발목을 다친 이유는 전경에게 밀쳐져서가 아니다. 내 뒤에 있던 한 아저씨께서 친절하게도(아이쿠) 나를 '보호' 해주시겠다고, 나를 거칠게 뒤에서 때어내는 와중에 생긴 일이었다. 그리고 '여자들은 뒤로 가!' 혹은 '미친 남자XX들, 너네 왜 비겁하게 뒤에 있어 앞으로 나와!'라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대체 왜 맨 앞에서 싸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데도, 굳이 맨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남성*에게는 욕을 해대면서 나오라고 하고,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성에게는 싸울 권리도 안 주고 굳이 때어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엔 여성과 남성밖에 없고, 당연히 '여성은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구닥다리 공식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더니 급기야 예비군 '남'들이 출동하였다. 그리고 늘 그렇듯 '여자들 뒤로 가!'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시민들을 '보호'해주시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경과 시민들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여 자기만족적인 보호대열을 만들었을 뿐, 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분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을 막아서, 특히 여성들을 뒤로 보내는 일에 앞장섰다. 그에 대항해서 여성주의자 친구들과 '불타는 언니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예비군 됐거든요!'라는 피켓을 들고나가서, 예비군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찾아가 (선창)미안하지만~ (다같이)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함창하며 몸짓을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우리는 날 보호해 줄 '오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이명박 정권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맞서서 같이 싸울 '동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의 퍼포먼스에 꽤 많은 언니들이 박수를 치며 지지해주었고, 많은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다.

비록 도심을 달구었던 촛불은 사그라들었지만, 나에게 어떠한 종류의 확신을 남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언제고 다시 광장에서 그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거대한 싸움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싸움의 주체로서 그것을 지켜냈던 그녀들이기에, 언제고 다시 촛불을 들 수 있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달까. 우리가 만났던 그때 그 도심의 광장이 아니더라도, 그녀들이 살고 있는 일상 또한 지난한 싸움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언니들, 힘내요, 그리고 또 보아워! ■

1.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 혹은 '남성으로 간주되는 외모와 옷차림을 한 사람' 정도가 될 것이다. 집회에 나온 한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자신이 자신의 성을 어떻게 정체화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춰, 외양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성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을 울리는 여성주의자들의 이야기 ②

날려라 빗자루!

- 연세대 분회 투쟁에 연대하며

그날도 화장실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인사를 해야하나... 뭐라고 해야하지?” 이런생각들로 꾸뻑거리는 동안에 그녀는 나를 지나쳤고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다 “에이 지금 인사하면 더 어색해 질거야.”라며 화장실을 나섰다. 얼마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쑥쓰러움은 점점 무뎌져갔고 무관심한 척 지나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녀들은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 강의실과 복도를 청소하시고 쓰레기를 처리해주시는 분들이다.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들의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여 왔다.



올해 초에 대량해고의 위협을 느낀 연세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집회를 가지고, 현수막과 자보를 걸어 투쟁하는 모습을 대학 내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 그동안 학교와 용역회사에 의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음을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 내가 일상에서 관계 맺는 그녀들의 삶에 이렇게 철저히 무지할 수도 있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달게 되었다.

상황을 조금씩 전해 듣고 맘속으로 “학교가 너무하네 회사도 참...” 이렇게 생각만 갖다가, 집회가 있을 때 잠깐씩 가보곤 하였다. 처음에는 직접 그녀들과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어색하게 본관 한 구석에 앉아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학교가 그녀들의 이야기를 삭제해서 나의 관심이 닿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본관 뿐 아니라 학내 곳곳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밀어내고 있는 무관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기도 하였다. 여러 생각을 하던 와중에 나는, 그동안 당연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져서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연세대분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연대하는 ‘날려라 빗자루!’ 팀 활동을 시작하였다.

어색하게 휴게실²문을 두드리며 시작된 대화들은 그녀들의 삶과 나의 삶이 맞닿은 지점들을 조금씩 보여주었다. 나이 많은 중년여성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인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이 정년퇴직한 후 생활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와 늘어난 과외비를 마련하고자 대형마트에 나가는 엄마의 친구들을 말이다. 그녀들이 번 돈은 ‘반찬값’으로 치부되기 일쑤여서 ‘생계비’를 버는 남성노동자에 비해 쉽게 해고되었고, 노동자라기보다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집안 살림을 하며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아줌마’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녀들은 왜 그렇게 저임금에 함몰고 번거로운 일인데다 안정성도 없는 비정규직으로 물리는 걸까. 비숙련 노동이라서? 대체가능성이 높아서? 비숙련 노동이라고 쉬운 일이라고 규정짓는 기준은 무엇이며 규정하는 권력의 정체가 궁금하다. 세계 노동의 2/3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지만 세계임금의 10%를 여성이 받고 있고 세계 자산의 1%를 여성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권력이 상당히 가부장적

1. ‘날려라 빗자루’ 팀은 여성주의적으로 학내 비정규직 미화 노동자들의 삶을 풀어나가고 연대하는 20대 총학생회의 여성노동자연대 팀이다.

2. 처음에는 휴게실을 찾는 것도 일이었다. 워낙 구석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일을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무력무력 솟아났다. 일하는 여성의 2/3가 비정규직이고 전체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통계를 보았다. 지금도 손이 많이 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힘든 잡우는 '꼼꼼하고 섬세한' 여사원에게 맡겨지기 일쑤고, 손님접대나 커피타기 같은 일들은 암묵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외모가 더 중시되고, 여성이 많은 서비스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이 낮은 이 모든 현실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일할 여학생인 나와 우리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문제는 권력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역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외주 고용하는 학교의 권력,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는 회사가 학교발전기금은 내는, 학교와 회사 사이의 권력³,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해고위협을 해서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⁴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그녀들이 대항하고 있는 권력은 또 있다, 그녀들을 무시하고 성폭력적인 언행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력, 나이 많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강요할 수 있는 권력⁵, 권력들 말이다. 멋대로 해고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휴가나 산재보험도 해주지 않은 것은 학교와 회사인데, 부당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이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투쟁해야 하고, 학교와 회사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권력들 때문이다.

우리 학교의 비정규 미화노동자들은 대걸레질을 하느라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팔꿈치가 붓는 일이 많다. 그러나 치료를 받기위해 잠시 일을 쉬고 싶어도, 쉬는 즉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비로 진통제 맞아가며 계속 일을 나오신다. 그리고 청소용품은 제대로 주지 않아서 사비로 사서 쓰시는데, 적은 임금에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몸이 상하지 않게 적당한 시간동안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그것이 회사나 학교에겐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나 보다.

이런 부당한 일들은 어쩌다 생긴 불운도 아니고 학교관계자나 회사가 보기 드물게 악질이어서도 아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하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일은 연세대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임금을 주는 사람이 평등해 보이지만 살살 파헤쳐보면 나오는 건 불평등한 권력관계뿐인 것을 왜 그리도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 부끄럽다. 지금도 여전히 학내에서도 외부에서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와 회사는 더더욱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탄압하고 있다⁶. 이런 현실을 바라만 보지 말고 한 번 다가가서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우리의 일상과 이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그녀를 만나면 이렇게 말을 꺼내 보아야겠다. "점심 드셨어요? 요즘 대청소 기간이라면서요? 힘드시겠어요, 식비 적용된 것은 회사가 다 주던가요?" ■

3. 명신개발이 연세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3억5천만원, 세불임금 또한 3억5천만원.

4. 동문회관에서 일괄적으로 날짜가 적히지 않은 사직서를 강요해 받아둔다거나 노동조합원에게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다.

5. 이 권력들 속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생산해 내는 신자유주의 자본권력과 '여성의 일'을 저평가 함으로써 여성을 이런 저임금노동에 몰아넣어 착취하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권력들이 있다.

6. 원래 주던 일을 주지 않는다고 조합원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조합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세불임금진정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일상을 올리는 여성주의자들의 이야기 ③

선본원 4인의 대담, ‘여성주의 공동체’

‘여성주의 공동체’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각기 다르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래, 어쩌면 아직까지 ‘여성주의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내의 ‘여성주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도대체 왜??? 여성주의 공동체가 뭐길래?? 오늘 여기 4명의 대담자가 ‘여성주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 모였다. 레이, 라하, 안달, 모두 학내의 ‘여성주의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풀어놓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경험들을 들다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이들의 대담에 귀 기울여보자.

여성주의 공동체와 관계 맺기

라하 내가 다른 공동체가 아닌 여성주의 공동체를 필요로 했던 건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내가 가족문제를 겪고 있거나 세상에 대해 화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여성주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지를 배워갈 수 있었어. 막연히 위로 받는 것보다는 그게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됐어.

레이 나는 여성주의자라고 정체화하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의 재미를 위해서 내 정치를 버리고 후진 농담을 한다든가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주의적인 연애얘기에 함께 고민해주는 게 힘들었어. 그러다보니 그런 불편함을 안 겪을 수 있는 여성주의 공동체를 더욱 찾게 되더라.

안달 나 같은 경우엔 일상적으로 남성들 간의 권력이 공유되는 공간에서 불편함이 나 거부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싫다는 표현을 못하고 자책만 했었지. 그런데 여성주의 공동체에선 그런 일상적인 권력 관계를 지양하니까 안달을 좀 덜하게 되어 편했던 것 같아.

레이 난 라임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입학 하면 새내기들이 속할 수 있는 동아리나 과반 학생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런 걸 다 외면한 채 어떻게 바로 여성주의 공동체를 찾게 되었는지 듣고 싶어.

라임 음... 나 같은 경우엔 ‘남자니까 혹은 여자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 비록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물론 처음에는 여성주의의 소모임과 동아리활동을 같이할 생각이었지만 하다보니까 다른 건 안 하게 되더라.

여성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들

라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웬지 까칠하다, 별 걸 갖고 다 시비건다’ 뭐 이런거잖아.

레이 라하는 여성주의의 그런 면에 끌렸던 거지?

라하 응. 나는 뭔가 막연하게 이 세상엔 바

뀌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즉 여성주의가 괜한 걸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성찰하고 노력하면서 잘못된 걸 바꿔내려 한다는 걸 알았던 거지.

레이 나도 입학하기 전까진 ‘여성주의가 뭐예요?’ 그러던 천둥벌거숭이 같은 존재였어. 특히 동아리 선배들이 ‘총여 되게 무서운 데야’ 이런 농담을 하니까 나에게도 조금씩 여성주의에 대한 벽이 쌓여갔지. 그럴 무렵에 여성주의 문화제나 자료집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거야. 그때부터 여성주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라하 예? 정말?

레이 응. ‘그림도 어디서 이렇게 이쁜 그림을 찾아낼까?’ 부터 시작해서 전시해놓은 거 보면, 예쁜 그림들(가끔씩은 무서운 그림도 있지만) 붙어있던 거에 혹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이 결과물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봤더니 다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 그런 모습들에 흥미를 갖고 처음에 발을 들여 놓았었던 기억이 있어.

안달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은 여성주의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때론 상식 이하의 행동도 하고...

라임 맞아. 올해 10회 여성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밤에 누가 천막을 칼로 찢고 갔어.

라하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여성주의'가 맘에 안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천막이나 플랑 찢고 가는 건 정말 찜찜한 것 같아.

아.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의 삶도 참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라하 맞아. 사실 나도 '노동문제'와 같은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들이 결코 여성이자 여성주의자인 나와 무관한 것들이 아님을 알게 됐어.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보다도 특히 '내 일상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게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해. 나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이나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게 됐어.

라임 나는 처음에 내가 별 생각 없이 하는

플 달아주고 했던 게 재밌었어. 라하는 뭐가 가장 재밌었어?

라하 내가 여성주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제일 재밌고 좋았던 건, 촛불집회 때, 같이 '불타는 언니들'을 결성해서 피켓도 만들고 우리끼리 여러 가지 구호를 만들어서 집회에 나갔던 거야. 집회 현장에서 예비군 아저씨들이 여자라고 자꾸 뒤로 나가라 그러고 보호해 준답시고 자꾸 밀쳐내고 이런 것들이 불편했었어. 하지만 여성주의자들이랑 그 안에서 불편했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힘이 됐어.

앞으로의 여성주의공동체는?

라임 여성제 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주고 좋아해서 놀랐고, 정말 좋았어. 앞으로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부담 갖지 말고...

안달 앞으로도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타자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해. 그리고 여성주의 공동체 내부 내에서도, 타인을 배제하거나 권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항상 경계하며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 같아.

레이 나는 무엇보다 여성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지해 주고 서로 잘 토닥이면서 운동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무시할 건 무시하고 대응해야 할 건 대응해 나가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하 나의 바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공동체들이 여성주의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야. 그런데 저절로는 안 될 것 같아. 많은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해 나가면서 점점 이 힘이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어. ■



레이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왜 맘에 드는지 말로 설명할 논리도, 언어도 없었기 때문일거야. 나는 그들과 오해가 있었다면 풀거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싶은데 항상 숨어서 테러를 하는 게 좀 씁쓸해.

여성주의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안달 사람들은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 '여성주의자들은 성을 그냥 두 개 쓴다.', '여성주의자들은 여/남 이렇게 쓴다.'는 등의 가십거리 만들기 쉬운 일들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하지만 '촛불문화제', '탈이성애중심주의', '비정규직', '환경문제' 등 다양한 것들에 문제제기하며 활동하고 있잖

아. 이러한 생각들이 '내가 몰랐던 차별이나 편견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서 좀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게 된 것 같아.

안달 나는 여성주의를 접하기 이전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그저 내 성격이 소심하니까' 정도로 생각했거든. 하지만 여성주의를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보니, 내 탓이 아닌 사회적인 편견이나 권력관계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긍정할 여지가 조금은 생겼지.

레이 나는 무엇보다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블로거들의 모임에서 활동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 온라인 공간에서 글을 올리고 리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 선본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1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문김채연 · 정이명화와 함께하는 사람들